

무료 재테크 입문 가이드북

재테크 기초 용어 101

주린이가 가장 많이 묻는 단어, 비유와 예시로 한 번에

이 책에 담긴 4가지 영역

 계좌·세금

 투자상품

 시장·경제 지표

 차트·매매

본 자료는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제·한도·세율은 표기된 기준일(asOf) 시점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발신 시점에 1차 출처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책 읽는 법

두 가지 깊이로 정리했어요.

미니카드 (핵심 35개)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는 ① **한 줄 정의** → ② **일상 비유** → ③ **실전 예시(숫자 포함)** 순서로 풀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라면 비유부터 읽으세요.

한 줄 정의 (65개)

나머지 용어는 한 줄로 핵심만 짚었습니다. 빠르게 찾아보는 사전처럼 쓰면 됩니다.

세금·한도 숫자 주의

계좌·세금 영역의 한도·세율은 **매년 바뀝니다**. 각 카드의 '출처·기준일'을 확인하고, 실제 가입 전엔 국세청·금융사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빠른 찾기 — 100개 용어 가나다순

■ 계좌·세금 · ■ 투자상품 · ■ 시장·경제 지표 · ■ 차트·매매

- CPI (소비자물가지수)
- ELS·ELB
- ETF (상장지수펀드)
- GDP (국내총생산)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NAV (순자산가치)
- PBR (주가순자산비율)
- PER (주가수익비율)
- ROE (자기자본이익률)
- S&P500
- TDF (타깃데이트펀드)
- VIX (변동성지수)
- 갭 (갭상승·갭하락)
- 거래량
- 거치·적립 매수
- 거치식·적립식
- 경기침체 (리세션)
- 골든크로스·데드크로스
- 과세이연
- 괴리율
- 국채·회사채
- 금리 (기준금리)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기준금리·시장금리
- 기초자산
- 나스닥
- 납입한도
- 듀레이션
- 디플레이션
- 레버리지·인버스 ETF
- 리밸런싱
- 리츠 (REITs)
- 만기수익률 (YTM)
- 매수·매도 호가
- 명목금리·실질금리
- 물타기·불타기
- 박스권 (횡보)
- 배당
- 배당락
- 배당성향
- 배당소득세
- 배당수익률
- 변동성
- 분리과세
- 분배금
- 분배락
- 분할매수
- 비과세
- 비과세 한도(ISA)
- 비중조정 (포지션 사이징)
- 세액공제
- 세제혜택계좌
- 소득공제
- 손익통산
- 손절 (스톱로스)
- 슬리피지
- 시가·고가·저가·종가
- 시가배당률
- 시가총액
- 신탁형·일임형·중개형(ISA)
- 액티브 펀드
- 양도소득세
- 양적완화·양적긴축
- 연금보험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한도
- 연금저축
- 외국인 순매수
- 우선주·보통주
- 원천징수
- 원화 약세·강세
- 유동성
- 의무가입기간

- 이동평균선
- 익절
- 인덱스(패시브) 투자
- 인플레이션
- 일반형·서민형(ISA)
- 장단기 금리차
- 종합과세
- 주가지수
- 주식
- 중도해지
- 지지선·저항선
- 채권
- 채권 금리와 가격 (역의 관계)
- 추격매수

- 추세선
- 추적오차
- 캔들 (양봉·음봉)
- 코스트애버리징 (정액분할매수)
- 코스피·코스닥
- 토탈리턴
- 퇴직소득세
- 펀드
- 펀드 보수
- 평단가 (평균단가)
- 표면금리
- 환율
- 환헤지 (H·UH)

핵심 용어 — 비유와 예시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금 혜택받으며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는 절세 통장.

비유 예금·펀드·주식을 한 칸씩 담은 칸막이 도시락통이에요.

예시 연 2,000만 원까지,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관련: ISA 비과세 · 일반·서민형 · ISA 유형 · 연금저축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위 (기준 2026-01-01)

연금저축

노후 대비로 모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 저축 계좌.

비유 미래의 나에게 다달이 부치는 적금 같은 통장이예요.

예시 연 6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관련: IRP · 세액공제 · 연금소득세 · ISA

출처: 소득세법 §59의3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2026-01-01)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함께 굴리는 노후 전용 계좌.

비유 퇴직금을 담아두고 불리는 노후 전용 금고예요.

예시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돼요.

관련: 연금저축 · 세액공제 · 퇴직소득세 · 세제혜택계좌

출처: 소득세법 §59의3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2026-01-01)

연금보험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넘게 유지하면 이자가 비과세되는 노후 연금.

비유 세금 혜택을 미리 안 받는 대신, 오래 묵힐수록 이자에 세금이 빠지는 장기 저금 보험이에요.

예시 월 적립식으로 10년 넘게 넣고 요건을 채우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 0원이에요. 단 2~3년 만에 깨면 사업비 탓에 원금이 줄 수 있어요.

관련: 연금저축 · IRP · 비과세 · 연금소득세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25 / 법제처·국세청 (기준 2026-01-01)

비과세

번 돈에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것.

비유 통행료 없이 그냥 지나가는 무료 도로 같은 거예요.

예시 ISA 서민형은 수익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관련: 비과세 · ISA 비과세 · 분리과세 · ISA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01-01)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 매기는 방식.

비유 전체 영수증에 안 합치고 따로 계산하는 별도 계산서예요.

예시 ISA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돼요.

관련: 종합과세 · 금소세 · 비과세 · ISA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01-01)

세액공제

널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빼주는 혜택(널 세금이 있을 때).

비유 계산서 맨 끝에서 깎아주는 할인 쿠폰 같은 거예요.

예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널 세금이 있을 때).

관련: 소득공제 · 연금저축 · IRP · 세제혜택계좌

출처: 소득세법 §59의3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2026-01-01)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높게 매기는 세금.

비유 이자·배당이 일정 선을 넘으면 붙는 누진 계산서예요.

예시 연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과세돼요.

관련: 종합과세 · 배당소득세 · 분리과세 · 원천징수

출처: 소득세법 §14 /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기준 2026-01-01)

손익통산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 매기는 것.

비유 이긴 판과 진 판을 더해 최종 점수만 보는 거예요.

예시 100만 벌고 40만 잃으면 60만 원에만 세금 매겨요.

관련: ISA · 과세이연 · 양도세 · 분리과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 국세청·금융위 (기준 2026-01-01)

과세이연

세금 낼 시점을 나중에 미뤄주는 혜택.

비유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몰아 내는 외상 같은 거예요.

예시 연금계좌는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뤄 더 굴릴 수 있어요.

관련: 연금저축 · IRP · 손익통산 · 세제혜택계좌

출처: 소득세법 연금계좌 과세이연 / 국세청 (기준 2026-01-01)

한 줄 정의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기준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
원천징수	돈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방식.
배당소득세	배당으로 받은 돈에 매기는 세금. 보통 15.4%.
양도소득세	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
종합과세	여러 소득을 다 합쳐 누진세율로 매기는 방식.
납입한도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
의무가입기간	혜택받으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
중도해지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계좌를 미리 깨는 것.
비과세 한도(ISA)	ISA에서 세금 안 내는 수익 한도. 일반형 200만.
일반형·서민형(ISA)	소득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른 ISA 유형 구분.
연금수령한도	연금으로 받을 때 한 해 인출할 수 있는 한도.
연금소득세	연금으로 받을 때 매기는 낮은 세금. 3.3~5.5%.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 근속이 길수록 낮아져요.
세제혜택계좌	세금을 깎거나 미뤄주는 혜택이 붙은 계좌.
거치식·적립식	한 번에 넣는 방식과 나눠 넣는 방식의 구분.
신탁형·일임형·중개형(ISA)	운용 방식에 따라 나뉘는 ISA 세 가지 종류.

핵심 용어 — 비유와 예시로

ETF (상장지수펀드)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사고파는 펀드.

비유 과일 한 개씩 말고 모듬과일 세트를 사는 것과 같아요.

예시 코스피200 ETF 1주를 사면 삼성전자 등 2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돼요.

관련: 펀드 · 인덱스 투자 · NAV · 펀드 보수

펀드

여러 사람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굴러주는 상품.

비유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 요리사에게 맡기는 공동 식당 같아요.

예시 100명이 10만원씩 모은 1,000만원을 운용사가 주식·채권에 나눠 투자해요.

관련: ETF · 액티브 펀드 · 펀드 보수 · 인덱스 투자

채권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증서.

비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과 비슷해요.

예시 3년 만기 국채에 100만원을 넣으면 매년 정해진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아요.

관련: 표면금리 · YTM · 국채·회사채 · 듀레이션

배당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비유 가게 주인들이 장사로 번 이익을 지분만큼 나눠 갖는 셈이에요.

예시 1주당 배당 1,000원인 주식을 100주 가지면 10만원을 받아요 (세금 별도).

관련: 시가배당률 · 배당락 · 배당성향 · 배당소득세

리츠 (REITs)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나눠주는 상장 상품.

비유 건물 한 채를 여러 명이 쪼개 사서 월세를 나눠 받는 구조예요.

예시 리츠 1주를 5,000원에 사면 빌딩 임대료의 일부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관련: 배당 · 분배금 · 주식 · 배당수익률

토탈리턴

가격 변동에 배당까지 합친 진짜 총수익률.

비유 월급만 보지 말고 보너스까지 합쳐 연봉을 따지는 것과 같아요.

예시 주가가 5% 오르고 배당 3%를 받으면 토탈리턴은 약 8%예요.

관련: 배당 · 분배금 · ETF · 인덱스 투자

분배금

ETF·펀드가 받은 배당·이자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돈.

비유 모임 통장에 쌓인 이자를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아요.

예시 분배금 월 100원인 ETF를 100주 가지면 매달 1만원을 받아요 (세금 별도).

관련: 배당 · 분배락 · ETF · 토탈리턴

인덱스(패시브) 투자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투자 방식.

비유 반 평균 점수를 그대로 목표로 잡는 무난한 전략이에요.

예시 S&P500 인덱스 ETF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을 통째로 따라가요.

관련: ETF · 액티브 펀드 · 추적오차 · S&P500

액티브 펀드

지수보다 더 벌려고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펀드.

비유 정해진 식단 말고 셰프가 그날그날 메뉴를 짜는 식당 같아요.

예시 운용 보수가 연 1~2%로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편이에요.

관련: 인덱스 투자 · 펀드 · 펀드 보수 · ETF

출처: 국내 액티브 펀드 보수 일반 범위(상품별 상이) (기준 2026-01-01)

괴리율

ETF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벗어난 정도.

비유 정가 1만원짜리 물건이 매대에선 1만 500원에 팔리는 차이예요.

예시 NAV가 1만원인데 시장가가 1만 100원이면 괴리율은 +1%예요.

관련: NAV · ETF · 추적오차 · 유동성

추적오차

ETF가 따라가려는 지수와 얼마나 다르게 움직였는지.

비유 앞차를 따라가는데 자꾸 간격이 벌어지는 정도와 같아요.

예시 지수는 10% 올랐는데 ETF는 9.5%만 오르면 추적오차가 생긴 거예요.

관련: 인덱스 투자 · ETF · 괴리율 · 펀드 보수

한 줄 정의

주식	기업의 주인 자격을 잘게 쪼갠 소유권 증서예요.
우선주·보통주	배당을 먼저 받는 우선주, 의결권 있는 보통주예요.
시가배당률	현재 주가 대비 배당이 몇 %인지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배당락	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지며 주가가 조정되는 날이에요.
배당성향	기업이 번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눠준 비율이에요.
표면금리	채권에 적힌 액면 기준 연 이자율을 말해요.
만기수익률 (YTM)	채권을 만기까지 들었을 때 받는 실제 연수익률이에요.
듀레이션	금리가 바뀔 때 채권값이 얼마나 출렁이는지 나타내요.
국채·회사채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예요.
ELS·ELB	주가에 연동돼 조건 충족 시 수익을 주는 상품이에요.
TDF (타깃데이트펀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펀드예요.
펀드 보수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대가로 매년 떼는 수수료예요.
환헤지 (H·UH)	환율 변동 영향을 줄이면 H, 그대로 두면 UH예요.
레버리지·인버스 ETF	지수 움직임을 배로 키우거나 반대로 따라가는 ETF예요.
기초자산	파생상품의 값이 따라 움직이는 바탕이 되는 자산이에요.

NAV (순자산가치) ETF·펀드 한 좌가 담고 있는 실제 순자산 가치예요.

분배락 분배금 권리가 빠지며 ETF 가격이 조정되는 날이에요.

핵심 용어 — 비유와 예시로

금리 (기준금리)

돈을 빌릴 때 치르는 값, 경제의 체온계예요.

비유 돈에 붙는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친구 돈을 빌리고 고맙다고 얹어주는 그 웃돈이 금리예요.

예시 중앙은행이 정하는 게 기준금리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최근 2%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이게 내 예금·대출 이자의 출발점이 돼요.

관련: 기준·시장금리 · 인플레이션 · 채권 금리·가격

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 2026-06-27)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이예요.

비유 작년엔 5천 원이던 김밥이 올해 6천 원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예요.

예시 보통 물가가 1년에 2% 안팎 오르는 걸 정상으로 봐요. 예로 물가가 3% 오르면 100만 원의 실제 가치는 약 97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예요.

관련: CPI · 디플레이션 · 금리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6.5) (기준 2026-06-27)

환율

우리 돈과 외국 돈을 바꿀 때의 교환 비율이예요.

비유 해외여행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가격표라고 보면 돼요. 그 가격이 매일 조금씩 달라져요.

예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면 1달러를 사는 데 1,500원이 든다는 뜻이예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주식·여행이 더 비싸져요.

관련: 원화 약세·강세 · 환헤지 · 금리

출처: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 한국은행 (기준 2026-06-27)

GDP (국내총생산)

한 나라가 1년 동안 만든 부가가치의 총합이예요.

비유 나라 전체의 1년 성적표라고 보면 돼요. 이 숫자가 커지면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예시 GDP 성장률이 플러스면 경제가 커지는 중이예요. 한국은 보통 연 2% 안팎 성장하고, 마이너스가 이어지면 경기침체로 봐요.

관련: 경기침체 · 인플레이션 · 주가지수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2026.5) GDP 성장률 (기준 2026-06-27)

주가지수

여러 종목 주가를 묶어 만든 시장 평균 점수예요.

비유 반 전체 평균 점수 같은 거예요. 한 명만 보지 않고 시장 전체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한눈에 보여줘요.

예시 코스피·S&P500이 대표적인 주가지수예요. 예로 지수가 2,500에서 2,600으로 오르면 시장 전체가 약 4% 올랐다는 뜻이예요.

관련: 코스피·코스닥 · S&P500 · 시가총액

출처: 한국거래소(KRX) 지수 (기준 2026-06-27)

시가총액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드는 가격, 회사 몸값이예요.

비유 주가가 한 조각 가격이라면, 시가총액은 케이크 전체 가격이예요. 조각 가격 × 조각 수로 계산해요.

예시 주가 7만 원 × 주식 60억 주면 시가총액은 약 420조 원이예요. 회사 규모를 비교할 땐 주가보다 이 숫자를 봐요.

관련: 주식 · 주가지수 · 코스피·코스닥

코스피·코스닥

한국 주식시장의 두 운동장, 대형주와 성장주예요.

비유 코스피는 대기업이 뛰는 1군 운동장, 코스닥은 중소·벤처가 뛰는 2군 운동장이라고 보면 쉬워요.

예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코스피, 바이오·게임 같은 성장주는 코스닥에 많아요. 코스피 지수는 그날그날 한국 증시 전체 분위기를 보여줘요.

관련: 주가지수 · 시가총액 · 외국인 순매수

출처: 한국거래소(KRX) 코스피·코스닥 (기준 2026-06-27)

S&P500

미국 대표 기업 500곳을 묶은 미국 시장 대표 지표예요.

비유 미국 경제의 대표 선수 500명을 모은 올스타 명단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 시장 흐름을 볼 때 가장 많이 봐요.

예시 애플·엔비디아 같은 대형주가 들어있어요. 많은 ETF가 이 지수를 따라가고, 미국 증시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줘요.

관련: 나스닥 · 주가지수 · 인덱스 투자

한 줄 정의

명목금리·실질금리	통장 이자(명목)에서 물가를 뺀 게 진짜 수익(실질)이에요.
CPI (소비자물가지수)	우리가 자주 사는 물건값을 모아 물가를 재는 대표 지표예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 소비가 얼어붙기 쉬워요.
기준금리·시장금리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따라 예금·대출 시장금리가 움직여요.
양적완화·양적긴축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완화, 거둬들이는 게 긴축이에요.
채권 금리와 가격 (역의 관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여요.
장단기 금리차	긴 채권과 짧은 채권의 금리 차이, 뒤집히면 경기 경고 신호예요.
경기침체 (리세션)	경제 성장이 멈추고 뒷걸음치는 시기, 소비와 일자리가 줄어요.
원화 약세·강세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 내리면 원화 강세라고 불러요.
나스닥	기술·성장 기업이 많이 모인 미국의 대표 시장이에요.
VIX (변동성지수)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재는 공포지수예요, 높을수록 겁먹은 상태예요.
PER (주가수익비율)	주가가 회사 이익의 몇 배인지, 비싼지 싼지 가늠하는 잣대예요.
PBR (주가순자산비율)	주가가 회사 순자산의 몇 배인지 보는 잣대예요.
ROE (자기자본이익률)	내 돈으로 얼마나 벌었나, 회사의 돈 버는 효율을 보여줘요.
배당수익률	주가 대비 배당이 몇 %인지, 주식이 주는 이자 같은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이 판 것보다 더 많이 사들인 양, 수급의 큰 손이에요.

핵심 용어 — 비유와 예시로

캔들 (양봉·음봉)

하루 주가의 사·고·저·종가를 막대 하나로 그린 그림.

비유 하루의 가격 일기장을 막대 하나로 요약한 셈이에요.

예시 시가 5만원에서 종가 5만2천원이면 오른 양봉(보통 빨강), 4만 8천원이면 내린 음봉(보통 파랑)으로 그려요.

관련: OHLC · 이평선 · 거래량

지지선·저항선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바닥선과 잘 못 뚫는 천장선.

비유 공이 바닥에서 튕기고 천장에 부딪히는 것과 비슷해요.

예시 주가가 5만원 근처에서 자꾸 멈추면 5만원이 지지선, 6만원에서 자꾸 막히면 6만원이 저항선이예요.

관련: 추세선 · 박스권 · 이평선

거래량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린 주식의 총 수량.

비유 가게에 손님이 얼마나 북적였는지 보여주는 발길 수예요.

예시 평소 100만 주 거래되던 종목이 하루에 500만 주 거래되면, 그날 관심이 크게 몰렸다는 신호예요.

관련: 캔들 · 유동성 · 갭

분할매수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사는 방법.

비유 장 볼 때 한 번에 다 안 사고 며칠 나눠 사는 것과 같아요.

예시 사고 싶은 돈이 300만원이면 100만원씩 세 번에 나눠 사서 한 가격에 몰리는 위험을 줄여요.

관련: 코스트에버리징 · 평단가 · 비중조정

손절 (스톱로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정한 선에서 파는 것.

비유 더 젖기 전에 우산 펴는 것처럼 손실을 미리 막는 거예요.

예시 5만원에 사면서 '3% 빠지면 판다'고 정해두면, 4만8500원이 되면 정해진 대로 파는 식이예요.

관련: 익절 · 비중조정 · 지지·저항

이동평균선

최근 며칠 증가의 평균을 이어 그린 추세선.

비유 들쭉날쭉한 가격을 부드럽게 다림질해 흐름만 보여줘요.

예시 20일선은 최근 20일 증가의 평균값을 매일 이어 그린 선으로, 단기 흐름을 가늠하는 데 써요.

관련: 골든·데드크로스 · 추세선 · 캔들

리밸런싱

비중이 틀어진 자산을 원래 목표 비율로 되돌리기.

비유 어질러진 방을 정해진 자리로 다시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예시 주식 60·채권 40으로 시작했는데 주식이 올라 70이 되면, 일 부 팔아 60·40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관련: 비중조정 · ETF · 채권

한 줄 정의

매수·매도 호가

사겠다고 부른 값과 팔겠다고 내건 값.

시가·고가·저가·종가	장 시작값·최고값·최저값·마감값 네 가지 가격.
추세선	가격이 흐르는 방향을 이어 그은 직선.
골든크로스·데드크로스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뚫으면 골든, 아래로면 데드.
박스권 (횡보)	위아래 일정 폭 안에서 오르내림만 반복하는 구간.
갭 (갭상승·갭하락)	전날 증가보다 훌쩍 뛰거나 빠진 채 시작해 생긴 빈틈.
물타기·불타기	내릴 때 더 사면 물타기, 오를 때 더 사면 불타기.
익절	이익이 난 상태에서 정한 선에 팔아 수익을 확정하기.
평단가 (평균단가)	여러 번 산 가격을 평균 낸 내 매수 평균값.
추격매수	이미 빠르게 오르는 가격을 뒤쫓아 사는 것.
거치·적립 매수	한 번에 목돈을 넣으면 거치, 매달 쪼개 넣으면 적립.
코스트애버리징 (정액분할매수)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사서 평균 매수가를 고르게 하기.
변동성	가격이 위아래로 얼마나 크게 출렁이는지의 정도.
유동성	원할 때 제값에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정도.
슬리피지	주문한 값과 실제 체결된 값 사이의 차이.
비중조정 (포지션 사이징)	한 종목에 돈을 얼마나 넣을지 비율을 정하는 일.



부록 — 자주 헷갈리는 짝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연금저축

노후 대비로 모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 저축 계좌.

연금보험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넘게 유지하면 이자가 비과세되는 노후 연금.

비과세

번 돈에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것.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 매기는 방식.

ETF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사고파는 펀드.

펀드

여러 사람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굴러주는 상품.

인덱스 투자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투자 방식.

액티브 펀드

지수보다 더 벌려고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펀드.

연금저축

노후 대비로 모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 저축 계좌.

IRP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함께 굴리는 노후 전용 계좌.

PER

주가가 회사 이익의 몇 배인지, 비싼지 싼지 가늠하는 잣대예요.

PBR

주가가 회사 순자산의 몇 배인지 보는 잣대예요.

익절

이익이 난 상태에서 정한 선에 팔아 수익을 확정하기.

손절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정한 선에서 파는 것.

분할매수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사는 방법.

추격매수

이미 빠르게 오르는 가격을 뒤쫓아 사는 것.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주린이 졸업 받은 한 거예요

용어를 알면 시장 뉴스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비스토리는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풀어드려요.

- 웹 버전(검색·그림 포함)은 비스토리 사이트 용어사전에서 곧 만나요
- 매주 시황과 절세 계좌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bstory_economy

본 자료는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제·한도·세율은 표기된 기준일(asOf) 시점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발신 시점에 1차 출처로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